

現代文明的寵兒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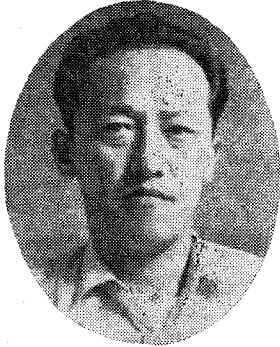
멘

트

禮

讚

論



朝鮮日報社論說委員

金

尙

鉉

지금 우리들의 생활주변은 온통 시멘트 투성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성 싶다.

그만큼 시멘트란 물건은 하나의 必需品으로서 洋의 東西를 막론하고 또한 貧富의 차이를 가릴 것 없이 어디서나 널리 애용되고 있음은 새삼 경탄해 마지 않을 일이다.

가까이는 집앞 들이나 현관, 부엌에서 부터 또는 담장과 대문 앞에 놓인 쓰레기 통으로부터 이른 아침 「少女의 祈禱」를 부르면서 清掃車가 오가는 골목 길을 거쳐 都市의 生活人들이 쏟아져 나오는 大路와 그 혼해 빠진 陸橋, 地下道, 高架道路, 立體交叉路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의 빵을 벌기 위해 씨름을 하러 들어가는 육중한 現代式 建物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시멘트를 主要 資材로 한 構造物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 뿐인가 그 強靱하고 耐久力이 역센이 抗壓材는 現今 文明世界의 動脈 구실을 하는 鐵道·水路·港灣·空港·댐·橋梁 및 모든 基幹産業 施設등의 核心的인 資料로 쓰여지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今世紀의 寵兒 역할을 하고 있는 시멘트가 西歐 地域에서 처음 發明된 것은 18世紀末葉 이었고 이 시멘트 工業의 본격적인 成熟期는 19世紀 中葉부터 시작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는 20世紀에 접어든 훨씬 뒤에, 그나마도 日人의 손에 의해 비로소 初期의 시멘트 工場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45년 解放 당시까지 日人들은 侵略戰爭 遂行에 따르는 需要急增 탓으로 이 땅에 7個의 시멘트 工場을 건설 했으나, 南韓에 자리 잡은 것은 三陟시멘트 工場 하나 뿐으로 그 年間 生産能力도 고작 8萬餘噸에 不過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微弱하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시멘트 工業의 嚆矢가 된 것 만은 누구도 否認 못할 사실일 줄 안다.

그로부터 굴직 굴직한 시멘트 工場들이 雨後 竹筍처럼 생겨나 67년도 生産實績이 3百萬噸에 이르게 됐고 今年度의 그것은 3百 60萬噸으로 算하게 되었다 하니 실로 隔世之感을 禁할 수 없다.

이같은 시멘트 工業의 括目할만한 發展은 지금 우리 나라의 어느 産業分野보다도 특출한 現象이며, 비록 業界의 자랑일 뿐 아니라 이른바 「近代化」의 「前進」를 다짐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爲政當局의 經濟開發 計劃이 제법 순조롭게 奏效한 결과라고 評價해도 無妨할듯 하다.

이 땅을 일컬어 錦繡江山이라고 불려 왔지만 山野가 荒廢하고 벌거숭이가 된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木材가 귀해서 외국으로부터 多量導入해야 하는 不可避한 場에, 그리고 有史以來 最大의 建築 붐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形편에서 바로 그 木材의 代替材인 시멘트를 그토록 豊富하게 우리 손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多幸한 일이다.

그뿐 아니라 國內需要를 充足하고 남은 것은 海外로 輸出하므로써 外貨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利點을 비롯해서 慢性失業이 痼疾化한 이 風土에서 失業者救濟와 雇傭增大를 이로 하므로써 社會的 貢獻을 할 수 있고 産業化한 企業의 발전과 經濟力의 增進을 通해 對外的으로 國威를 宣揚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 보다도 多樣化한 現代企業의 意慾과 潛在的인 投資力을 鼓吹, 擴大함으로써 많은 生産工場을 서게 할 수 있다는 原動力을 가졌다는 것이 시멘트 工業의 特記할만한 價値性이 아닐까 한다.

보기 좋게 뻗은 「하이웨이」, 高架道路, 高速道路등의 멋있는 미끄러움과 단단함도 시멘트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고, 都市의 美觀을 펼쳐 놓은 高層建物과 그 밖의 갖가지 構造物도 시멘트가 아니고서는 제대로의 價値를 발휘 하지 못할 것이다.

苛酷하기 그지 없는 奴隸勞動을 건설의 밀친으로 삼았던 暗黑時代나 原始世界에 만일 시멘트가 있었다고 假定한다면, 歷史의 흐름도 달라졌을 것이고, 專制君主 및 帝王의 橫暴도 덜甚했을 것이며, 臣下와 農奴들의 피땀어린 노력봉사도 한결 가벼웠을지 모른다.

저 유명한 中國의 萬里長城과 에집트의 피라

미는 그 時代에 있어서 각각 秦始皇이나 埃及王朝의 殘惡無道한 惡趣味에서 비롯한 빛나간 虛勢요, 人間酷使의 遺物的證據로 밖에 별 가치 없는 것이지만, 만약 그 때에도 시멘트가 있었다면, 무게 3.4噸 짜리의 굵직한 돌을 人力으로 몰아 깎아, 수십년 동안이나 쌓 올린느라고 슬한 人命을 희생시킨 무지막지한 짓을 하지 않고도, 보기 좋고 튼튼하고 훌륭한 望樓城寨와 王廟를 얼마든지 建立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獨逸 하이델베르그 大學엔 너무도 古色이 蒼然한 「學生監房」이란 것이 있다.

이 고리타분하고 어두침침한 監獄엘 들어가보면, 우선 곰팡이 냄새새가 코를 찌르긴 하지만 四面灰壁에 제멋대로 그려져 있는 그림과 落書등이 불만 하다.

물론 그 옛날의 엄격했던 學則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罰을 받기 위해 불들려 드러온 學生罪囚들이 킁킁하고 不自由스런 監房生活에서 답답하다 못해, 또는 思索과 悔改와 欲求不滿등의 突破口를 찾기 위한 심심풀이 작난으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 갈진 것이겠으나, 그 표현들이 너무도 諷刺的이고 含蓄性이 있기에, 그리고 자기 제 나름으로 流麗한 文章力을 驅使한 것이기에, 後世 學徒들이나 觀光客에게 기념으로 보여주곤 할지 않고 그대로 保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하이델 베르그 大學의 學生監房이나 또 그 건너편 언덕길을 뜻하는 이른바 「思索하는 哲人의 길」을 각각 洋灰와 관련된 前世紀의 名물이라고 한다면, 런던의 테임스江, 파리의 세느江, 獨逸의 라인江, 코펜하겐의 港灣公園, 에집트의 에스완·델과 나일江, 워싱턴의 포트맥江, 그리고 濠洲의 시드니港등은 今世紀에 있어서 더욱 그 빛을 내고 있는 세계적 名물이라 할만한 것이다.

이같이 由緒깊은 명물 등엔 물론 돈도 많이 썼지만, 그 兩岸이나 沿道 가장자리의 대부분은 시멘트로 만들어 졌음을 看過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말없이 차디찬 시멘트 땅바닥을 무대로 해서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수많은 善男善女들이

青春을謳歌하면서 사랑을 속삭여 왔고 즐거운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있으며, 내일의 보람있는 삶을 이어 나가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세계 3大美港의 하나로 손꼽히는 시드니港 어구에 洋洋한 南太平洋을 한눈으로 굽어보며 우뚝 솟은 超現代式 매머드 오페라·하우스는 純시멘트로 만들어진 달팽이와 조개껍질 모양의 지붕이 可觀이다.

또한 오스트렐리아가 자랑하면서 추진중인 세계적 大工事 스노위·마운틴·스킴(大分水山脈開發計劃)은 東海岸을 따라 延延 2천여 平方마일을 덮고 있는 산맥을 피뚫은 乾燥한 내륙지방에 물을 끌어들이는 한편 4백만kw에 달하는 電力을 생산코자 하는 30년 計劃인데, 明後年에 完工될 예정인 이 거창스럽고 야심적인 大工事엔 龐大한 水利施設과 發電所만도 9개나 건설되는 것이다.

× × ×

이상과 같이 시멘트禮讚을 하려면 限이 없을 것 같다.

너무도 大衆性이 길고 必需的 利用度가 높은 시멘트가 우리 나라에서도 뒤늦게나마 本格的으로 生産할 수 있는 段階에 있음은 어느모로 보나 同意해 마지 않을 일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國內 시멘트工業의 現況과 需要者의 立場 및 政府의 施策등 三角關係를 훑어 보면서 當면한 隘路와 보편적인 문제점 등을 대충 알려진 대로 살펴 보려 한다.

첫째로 시멘트 業界와 行政府와의 손발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특히 금년도 시멘트 需給計劃을 둘러싼 政府와 業界의 異見·對立이 바로 盛需期를 앞둔 지난 2월 表面化 되므로써 말썽을 빚었음은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바다.

이 싸움의 발단은 올해 시멘트 需給計劃上的 不足量輸入문제에 있어 政府側은 80萬톤을 잡고 있고 業界는 50만톤으로 잡는데다가 20만톤의 早期免稅輸入을 政府가 추진했기 때문에 洋灰業界

가 반발, 洋灰工業을 政府가 모조리 引受해서 國營으로 하라고 들이댔던데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業界側은 外産시멘트에 대한 關稅免稅 및 延拂 特惠 撤廢를 요청하는 對政府 陳情書에서 『國內産業維持는 姑捨하고 그 正常的인 稼動조차도 不可能하게 壓迫한 特惠인 免稅延拂輸入政策과 生産原價에도 크게 未達하는 無理한 價格抑制等 일련의 近視眼의이며, 姑息的인 施策은 우리 나라의 基幹産業인 시멘트 工業을 破綻으로 몰아 넣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政府가 消費者保護라는 美名下에 國內産業을 짓밟고 있음은 痛嘆할 일』이라고 지적 했다.

여기서 다시 業界의 반발 내용이나 政府側의 需給政策을 구체적으로 되새겨 볼 겨를은 없으나, 좌우간 業者들의 企業拋棄宣言에 政府가 굴복하여 종래의 方針을 完化하고 價格 및 需要를 再調整하는 한편 民間輸入業者를 통한 시멘트 導入은 하지 않기로 태도를 바꿈으로써 那樣의 波動을 未然에 防止 한 것만은 結果적인 다행이었다.

즉 시끄러운 波動을 겪지 않고 生産業者側은 廉價로 들어 닦칠 外産 시멘트의 輸入 루트를 일단 막았으니 那樣 저력 목적을 달성한 셈이고, 政府는 골치 아픈 연쇄적 반발을 무마 했으므로 安心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편 消費者側로서는 盛需期에 접어 들어도 시멘트 飢饉을 치루지 않고 中전대로 구입할 수 있으니 難을免했다는 것이다.

좌우간 생산업자인 洋灰工業界와 消費者인 建設業者들, 그리고 消費者와 生産者를 다같이 保護해야 할 처지에 있는 政府關係 部處등, 三者간의 見解와 利害打算 및 시멘트 需給計劃의 원만한 調節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줄 안다.

특히 價格安定을 꾀하는 政府施策과 싼값으로 適量을 適期에 供給받고자 하는 消費者, 그리고 지난해에 6個社가 共히 2億원 이상의 缺損을 보아 『倒産地境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價格引上을 요구하는 業者側의 合理的인 總和點을 찾아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둘째 시멘트가 産業經濟에 미치는 重大한 影

響性에 비추어 과연 業界는 利潤追求에만 血眼이 되지 않고 보다 高次元의 企業理性으로 不必要한 경쟁을 止揚하고 되도록 低廉한 價格으로 多量의 生産品을 供給할 用意가 있는가 없는가.

세계 國內需要를 充足한 다음 海外輸出을 國際時勢 나뉘므로 促進·擴大할 수 있을 만큼 施設 규모와 技術의 改善이 되어 있는가.

네제 6大메이커의 團合과 政治的인 肥大化로 시멘트工業을 獨寡占資本의 權益手段을 삼을 念慮는 없는가.

다섯째 政府의 物價政策이 이따금씩 經濟外的 要因과 壓力으로 一貫性이 缺如되어 갈팡 질팡, 그때 그때의 彌縫策으로 얼버무리려는 경향이 없지 않은듯 한데, 이것을 根本的으로 고쳐 좀 더

所信 있게 추진할 術 없는가.

여하튼 지난번의 시멘트 싸움을 契機로 해서 다시는 시멘트 需給計劃을 둘러싼 격심한 蹉跌 이나. 價格政策上的 마찰 특히 政府 關係部處간의 不協和音등이 再發되지 않도록 彼此 自省하고 동시에 아울러 基幹産業으로서의 시멘트 企業의 社會的 및 國家的責任과 政府의 對消費者 및 生産者 保護政策등 여러면에서 切實한 再認識과 覺醒이 필요 할줄 안다.

다시 말해서 巨視的 眼目에 立脚한 政府의 所信있고 合理的인 施策과 業界의 企業의 倫理가 併行되는 가운데서만, 이 現代文明의 寵兒인 시멘트는 國家産業發展의 原動역할을 할 수 있겠 기 때문이다.

第一回 韓國貿易博覽會 開催

場 所： 九老洞 第2輸出産業工業團地

期 間： 1968. 9. 9~10. 20 (42日間)

政府館에 가시면

第一次, 第二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의 代表的 業績인 시멘트 工業의 發展相을 보실 수 있고

業種館에 가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量産體制와 國際的 品質을 갖춘 시멘트 製品을 보실 수 있습니다

主 催： 社團 法人 韓國貿易博覽會

主 管： 大韓貿易振興公社